

18世紀 後期 프랑스 女子服飾에 關한 考察

趙 玉 禮

新丘專門大學 衣裳科

A Study on Women's Costume in the Period of Late 18th Century

Ok-Ryae Cho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hin-Gu Junior College

(1986. 2. 28 접수)

Abstract

The change and development of costume are related to the cultural and socioeconomic factors. In the 18th century the mode of the women's costume in France was greatly influenced by the Rococo style.

Elegance and exaggerated ornaments were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woman's costume in the Rococo period. The high hairdress and the widely hooped panier represented the typical Rococo fashion.

From the second half of the 18th century onwards the aristocracy began to lose the battle with the bourgeoisie for political and economic power, and at the same time bourgeoisie fashion exerted an influence on court dress.

The court fashion dominated the women's dress fashion in France up to the Revolution. Marie Antoinette, The Queen of Louis XVI, wa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fashion leaders in the 18th century.

The fashion, after attaining its highest point in 1770s, changed to a new direction in 1780s under Louis XVI. From that period onward the dimensions were smaller, hairdresses were not so high, and the trimming on the various garments was less liberal. In the mode, exaggeration was replaced by simplicity, and formality was replaced by functionalism.

I. 序 論

17世紀부터 政治的, 經濟的 強大國으로 浮上한 프랑스는 歐羅巴 服飾文化를 支配하게 되었으며 프랑스 服飾文化는 18世紀에 더욱 발달하였다.

이 時代에 經濟的 富를 배경으로한 프랑스王室과 貴族階級の 쾌락과 사치에 대한 無限한 欲求는 로코코(Rococo)樣式을 낳았다.

자유분방하고 無節制한 表現, 과장된 裝飾, 우아하고 女性的인 曲線美를 特徵으로 한 로코코樣式은 女子服飾에 그대로 반영되어 1770年代에는 極致에 이르러 있었다.

1770年代와 1780年代는 프랑스服飾史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轉換期이다. 로코코風이 絶頂에 이르러 이미 退色하기 시작했고 服飾形態는 보다 단순해졌으며 裝飾性은 줄어들고 機能性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變化는 近代의 産業社會의 發展과 合理主義, 啓蒙主義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8세기 女子服飾에 관하여서는 몇 사람의 先行研究가 있다. 金惠全(1972)¹⁾의 研究는 루이 16世 時代부터 革命 이후 帝政期까지의 期間(1775~1815)을 對象으로 하여 服飾變遷이 時代의 背景 및 思潮와 어떠한 關係에 있는가를 究明하는데 重點을 두었다. 趙순옥(1981)²⁾은 研究對象時期를 로코코時代에 맞추어 攝政期로부터 루이 16世期(1775~1789)까지로 하여 로코코藝術樣式의 한 部分으로서 女子服飾을 照明하였다. 그리고 朴春順(1981)³⁾도 18세기 女子服飾의 특징을 로코코裝飾 motif와 관련시켜 說明하였다.

이 研究에서는 18세기 後期를 중심으로 프랑스 女子服飾의 形態와 構成方法의 特徵을 考察하였다. 특히 1770年代와 1780年代의 比較分析에 重點을 두어 女子服飾이 70年代로부터 80年代로 어떻게 變遷했는가를 理解하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變化가 갖고 있는 意義를 찾아내는데에 努力하였다. 그리고 이 研究는 服飾構成方法의 세밀한 分析에 또한 重點을 두었다.

1770年代와 1780年代에 걸쳐 루이 16世의 王妃 마리 앙투와네트(Marie Antoinette)는 패션리더로서 커다란 影響을 미쳤다. 이 研究에서는 마리·앙투와네트가 패션을 강조하고 보급시킨 實例를 fashion plate, 實物사진, 文獻資料 등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은 그 당시 패션創造와 變化의 過程을 理解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I. 18세기 服飾文化의 背景

1. 社會·經濟의 背景

30年戰爭이 끝난 17세기 中期 이후 유럽의 새로운 支配勢力으로 등장한 프랑스는 루이 14世 時代에 絕對王政의 全盛期를 맞아 政治, 外交面에서 뿐만 아니라 經濟面에서도 強大國으로 發展하였다. 루이 14世는 10年 間에 國家財政收入을 倍增시켰으며 農業과 工業, 특히 織物 및 레이스産業을 財政支援을 통해서 育成하였다. 그 당시 100여개의 製造業體가 國家財政의 支援에 의해서 設立되었으며 알렌콘(Alencon)과 다른 여러 都市에 設립된 레이스센터는 얼마 안가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이스生産地가 된 것이다⁴⁾. 이와 같은 織物 및 레이스産業의 발달은 프랑스의 服飾發展에 있어 經濟的 基盤이 되었다.

18세기 유럽文明에는 하나의 變化가 일어났다. 독일 엘베강을 경계로 西部유럽에서는 새로운 中産階級이 형성되어 이들은 商業에서의 既存세력을 공고히 하는 한

편 새로 발전된 工業分野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商工人과 專門의 職業人을 포함한 부르주아階級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 敎育수준이 높았으며 社會的 地位의 向上에 대한 熱望이 컸다. 따라서 王室과 貴族을 중심으로 한 宮廷文化는 市民을 중심으로 한 社會가 이끌어가는 市民文化로 변형되었다. 「이제는 새로운 自由와 創意力, 품위있는 審美眼에 대한 열망, 그리고 세련된 服飾 등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의 階級이 아니라 하나의 社會인 것이었다.⁵⁾

18세기 後半부터 産業革命이 성공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有閑부인층이 형성되었고 그들은 경제적 富를 바탕으로 衣裳의 藝術性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 당시 社會 전체는 폭발적인 解放感과 富의 再分配속에서 우아하고 화려한 생활을 향유하였다. 誇示와 허영은 最高調에 달했으며 創意性 풍부한 衣裳은 階層간의 격차를 좁혀 주었다.

2. 로코코藝術樣式과 服飾

로코코時代의 服飾만큼 爛熟한 文化를 여실히 반영한 것은 없었다. 「로코코의 女性的 趣向은 女子服飾에 더 한층 纖細한 曲線과 지나친 裝飾으로 새로운 모드(mode)의 바탕을 형성했다.⁶⁾ 특히 婦人服은 社交場의 주요한 室內裝飾이 되었으며 환상적인 거대한 머리 스타일, 가는 허리, 부풀린 스커트, 넘쳐흐르는 듯한 裝飾등은 모두 하나의 예술품이었다.

이와 같은 로코코風은 루이 15世가 즉위한 뒤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形式性(formality)과 重壓感(heaviness)에 대하여 반항하고 천박한 패락을 즐기기를 원했으며 藝術과 生活에 있어 자유분방하고 無節制하며 破格的인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文化的 思潮를 바탕으로 한 로코코藝術樣式은 프랑스의 건축, 실내장식, 가구, 그림, 조각, 심지어는 무덤의 樣式에 이르기까지 影響을 미쳤으며 女子服飾의 패션을 지배하였다⁷⁾.

「로코코의 藝術樣式은 먼저 프랑스의 살롱을 중심으로 해서 번져나가 각지에서 계각기 독자적인 양식으로 발전했다. 살롱은 16세기 중엽에 몇 개의 문호가 개방되고 나서부터 부유한 시민들의 쾌적한 社交場으로 번영하고 있었는데……여기에는 허세가 없는 분위기에서 부드러운 纖細함을 基調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경향이었으며 그 특징은 裝飾美術의 로코코樣式으로서 나타났다. 즉, 쫓, 리본, 루우푸(loop), 쫓바구니 등의 유연한 모티브(motif)가 모든 생활공간을 장식하였다. 그 중 벽면장식, 織物의 紋樣, 衣裳裝飾에는 특별한 紐

스를 보이며 曲線의 감각이 전개되었다.」⁹⁾

로코코樣式의 과장된 裝飾性은 헤어드레스에 잘 나타나 있다. 「루이 16세가 즉위했을 당시 부인용 머리장식(coiffure)은 너무나 크고 무거워서 목부분에 견디기 어려운 압박을 주었으며 머리장식이 어쩌나 높은 지 입이 머리끝과 발끝의 중간점에 위치했다.」⁹⁾

18世紀 프랑스服飾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패션리더의 한 사람인 마리·앙드레베르트는 당시 패션세계를 지배하던 밀레·로즈·베르탱(Mille Rose Bertin)을 專用 드레스메이커로 채용하였다. 天賦의 재질을 타고난 디자이너인 베르탱은 로코코風의 服飾文化를 더욱 화려하게 꽃피우는데 공헌하였다.

또한 마리·앙드레베르트는 루소(Rousseau)의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에 감명을 받아 베르사이유궁전의 트리안옹宮(Petit Trianon)에서 궁중 여인들과 함께 공연한 연극에서 양치는 女人과 짓짜는 小女의 役을 즐겼는데 여기의 무대에서 王妃가 着用한 옷차림과 衣裳의 독특한 아이디어는 새로운 패션을 불러 일으켰다. 한가지 例로서 마리·앙드레베르트가 입었던 양치는 女人의 드레스는 시골옷으로서 널리 유행되었으며 이 드레스에 사용된 얇은 木綿은 유럽에 lingerie frock가 도입된 계기를 만들었다.¹⁰⁾

Ⅲ. 루이(Louis) 16世(1774~1792) 時代의 女子服飾

로브는 고딕末期로부터 착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르네

상스時代를 거쳐 18世紀 로코코時代에 와서는 프랑스 女子衣裳중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1750~1770년에는 프랑스 女子服飾에 있어 로코코의 趣向이 더욱 환상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 즉 팔과 목을 드러내고 소매는 팔꿈치부터 층층으로 풍부한 주름 레이스(lace)를 붙이고 가슴을 강조하여 데콜레(décolleté)로 깎으며 허리는 콜셀(corset)으로 조여 가냘픈 女性美를 나타냈고 엉덩이는 빠니에(panier)로 크게 부풀렸다. 이 時代에는 기계생산에 의하여 여러가지 아름다운 직물과 紋樣천이 생산되어 태피터(taffeta), 다마스크(damask), 브로카이드(brocade) 등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로코코衣裳에는 「리본장식, 팔발라(falballa), 꽃장식, 테두리장식, 金銀브레이드(braid), 레이스, 刺繡 등이 調和되어 사용되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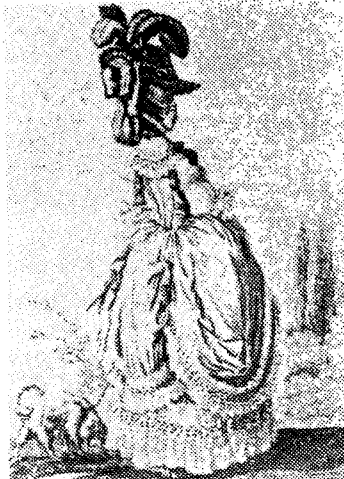
이러한 로코코衣裳에의 對應으로 이 무렵의 女子의 머리모양은 크게 확대됨과 더불어 技巧의인 장식이 행해졌다.

1780년경 부터는 이런 로코코衣裳의 특징은 무너지기 시작하여 거대했던 스커트 버팀대 빠니에가 작은 사이드로 중정에만 남게 되고 일반사회에서는 빠니에가 서서히 축소됨에 따라 로브의 주름이 엉덩이로 옮겨지면서 밧술·스타일(bustle style)이 다시 출현했다.

프랑스내에서 오랫동안 뿌리박고 있던 優美하고 화려한 로코코스타일과 영국에서 시작된 古典主義가 융합되어 服飾의 실루엣의 桴선은 서서히 직선으로 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服飾에 현저히 나타난 것은 프랑스혁명 이후이었다.



[그림 1] 로브·아·라·프랑세이즈 (1778)
(石山彰, History of Fashion Plate I, No. 34)



[그림 2] 로브·아·라·쁠로비에즈 (1777)
(石山彰, No. 31)



[그림 3] 로브·아·라·씨르카시엔스 (1777)
(石山彰, No. 30)



[그림 4] 로브·아·라·까라쑈
(1778)
(石山彰, No. 33)



[그림 5] 로브·아·랑글레예즈
(1788)
(石山彰, No. 41)



[그림 6] 슈미즈·아·라·렌느
(1783)
(Boucher, F., 20,000 Years
of Fashion, No. 747)

로브의 形態와 構成은 17世紀와 근본적인 차이는 없으나 18世紀中葉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빠니에 두블르(panier double)로 인해 構成法은 한층 복잡해졌다. 당시 로브의 構成法과 실루엣, 세부장식, 입는 방법 등은 현재 각 박물관에 현존하고 있는 遺品들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다.

다음은 1770年代와 1780年代에 걸쳐 女子服飾을 대표하는 로브, 즉 로브·아·라·프랑세예즈(그림 1), 로브·아·라·펠로네예즈(그림 2), 로브·아·라·씨르카시엔느(그림 3), 로브·아·라·까라쑈(그림 4), 로브·아·랑글레예즈(그림 5), 슈미즈·아·라·렌느(그림 6) 등에 관하여 그 형태와 특징 및 구성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1. 로브·아·라·프랑세예즈(Robe à la Française)(그림 1 참조)

로브·아·라·프랑세예즈는 빠니에두블르를 속에 입어 上體는 꼭 끼고 스커어트는 양옆으로 벌어지며 뒤에는 와포 주름(watteau pleats)을 넣어 풍성하게 했다.

bodice는 앞이 막힌 것과 개방된 것이 있는데 대개 가슴은 V字形으로 벌어지고 스커어트는 人字形으로 벌어졌다. 아름다운 스타머커(stomacher)와 언더스커어트(underskirt)는 위에 입은 로브와 같은 織物로 만들고 같은 장식을 하였다.

소매는 팔꿈치의 길이로 끝부분을 세단의 플라운스(flounce)가 있는 앙가장뜨(engageantes)로서 이 레이스 주름장식이 아름답게 노출된 팔을 돋보이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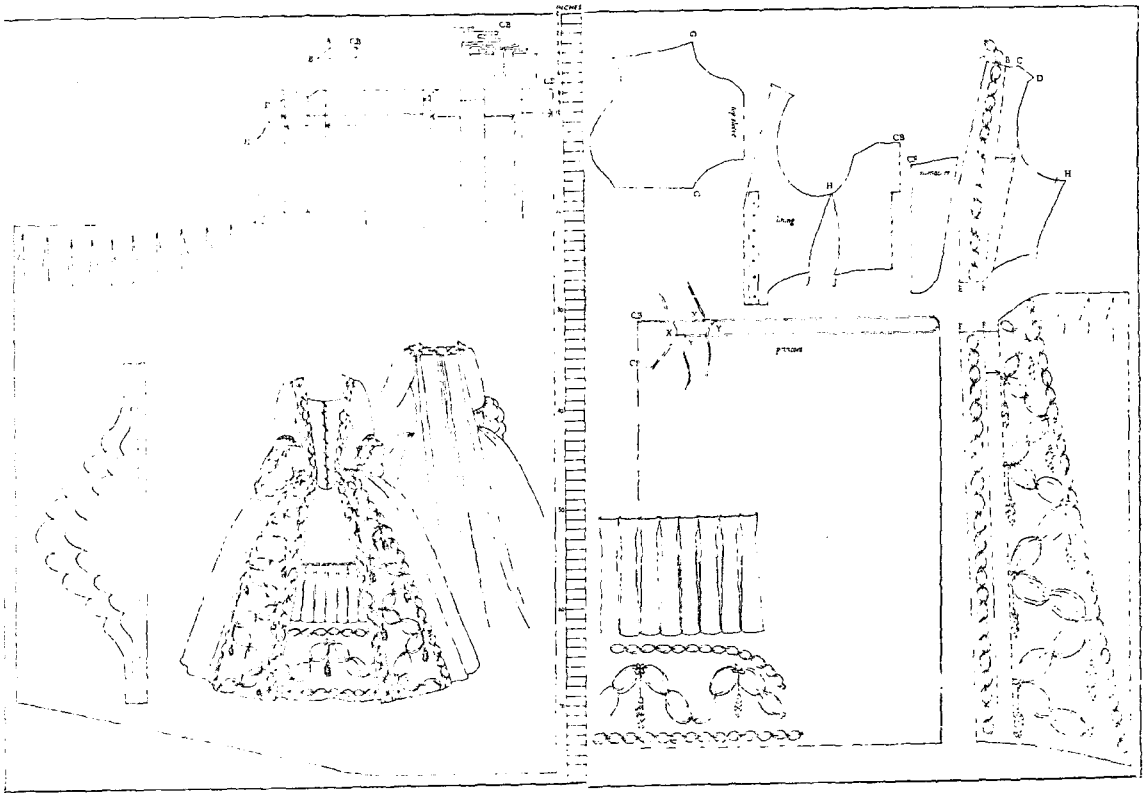
로브의 織物은 주로 絹, 얇은 緞, 紗, 빌로오드 등을 사용했다.

<그림 7>은 로브·아·라·프랑세예즈의 構成法이다. 앞몸판은 스커어트와 따로 재단되었으며 스커어트의 앞판 옆부분까지 bodice 위로 주름이 잡혔다. 뒷몸판에는 뒷목둘레와 양 어깨로부터의 주름이 스커어트 자락에 걸쳐 너울거리는 와포 주름이라고 하는 풍성한 주름이 있다.

스타머커가 없을 때는 bodice의 앞이 막혔으며 앞부분은 허리선에서 모양이 둥글고 길었다. 목둘레선은 스퀘어 네크라인(square neckline)으로 가슴이 거의 노출될 정도였다.

여기에 리본장식과 활발라 등이 스타머커와 스커어트의 人形 트임의 가장자리 그리고 언더스커어트에 중첩적으로 사용된 것이 특징이다. 스타머커 장식만 해도 크기가 다른 리본을 스타머커 위에 크기 순으로 배열한 것, 같은 크기의 리본으로 스타머커를 전부 메운 것, 커다란 리본을 가슴에 하나만 단 것 등 여러가지가 있어 마치 한 폭의 꽃과 같았다.

로브·아·라·프랑세예즈는 1774年頃이 大盛期였으며 프랑스革命 以前까지 궁중에서 의식행사에 사용되었으나 18世紀後半부터는 몇개의 略式服裝이 일상복



[그림 7] Robe à la Française의 構成法(1770年代)
 (Waugh, Norah, The Cut of Women's Clothes, 1600~1930, Diagram XX)

에 使用되었다. 즉 스커터트의 부풀림이 消極的이 되었고 스커터트를 당겨 올려 부풀림으로써 형태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한편 동작에도 간편함을 주게 되었다. 그 중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로브·아·라·폴로네에즈이다.

2. 로브·아·라·폴로네에즈(Robe à la Polonoise)(그림 2 참조)

로브·아·라·폴로네에즈는 1776년부터 약 10年間 유행하였다.¹² 이것은 로코코末期의 대표적인 로브로서 로코코樣式의 특성을 잘 나타내 주었다.

폴로네에즈의 특징은 스커터트의 뒷쪽에서 두 군데 커튼처럼 걷어 올린 것으로 허리를 부드럽게 부풀림과 동시에 動作의 기능성을 좋게 한 참신한 스타일이었다.

이 폴로네에즈의 소매는 자보 슬리브(jabot sleeve)로서 팔꿈치까지 꼭 끼고 그 끝은 러플(ruffle)로 장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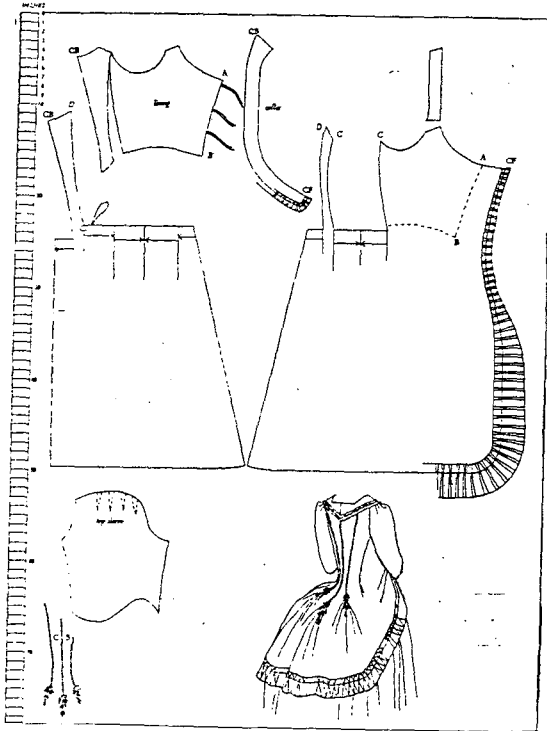
이 로브·아·라·폴로네에즈는 앞부분이 좁 넓게 벌어져서 스타머커와 언더스커터트를 보여준다. 스타머

커는 리본으로 장식되었고 언더스커터트는 활발라 배찰(tassel)로 장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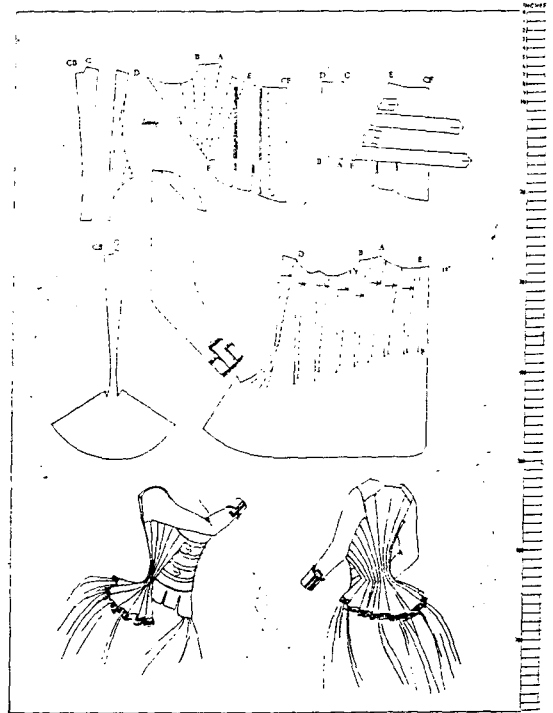
폴로네에즈의 構成法(그림 8 참조)은 그 당시의 남자 코우트와 같은 방법으로 재단되었다.¹³⁾ 이 로브는 뒷중심과 뒷판 옆부분에 솔기가 있으며 오버스커터트의 허리부분에서 인버티드 플리트(inverted pleat)를 만들어 이 솔기에 붙였다. 이 로브는 스커터트의 뒷부분을 커튼처럼 걷어 올리기 위해서 로브의 허리 안쪽 두 군데에 가는 끈의 고리를 달고 걸쭉에도 같은 장소에 단추나 리본을 묶어 달아 이 끈의 고리로 옷자락을 묶어서 걸의 단추에 달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스커터트를 세 부분으로 잘라 묶어 대슬장식으로 액센트를 주었다.

폴로네에즈는 루이 16世 통치기간 동안 마리·앙드와네트의 취향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과는 女子의 옷차림을 모방한 것이었다.¹⁴⁾

1770年代부터 파니에를 사용하여 허리 양측으로 솟아 오르던 실루엣의 로브·아·라·프랑세에즈는 엉덩이를 부풀린 로브·아·라·폴로네에즈의 밧솔 실루엣



[그림 8] Robe à la Polonoise 의 構成法
(Waugh, Norah, Diagram XXI)



[그림 9] Pierrot Jacket
(Waugh, Norah, Diagram XXIV)

으로 점차 변해 갔다.

3. 로브·아·라·씨르까시엔느(Robe à la Circa-sienne)(그림 3 참조)

로브·아·라·씨르까시엔느는 폴로네이즈의 변형으로 폴로네이즈와 같이 세개의 퍼프가 있으나 길이가 짧아 발목이 보이고 목둘레에 좁은 러프(ruff)와 같은 주름장식이 있다.

이 로브의 착용으로 유럽 역사상 中世 이래 처음으로 女性의 다리가 보였다.¹⁵⁾ 씨르까시엔느의 구성법은 폴로네이즈와 비슷하다(그림 8 참조).

4. 로브·아·라·까라꼬(Robe à la Caraco)
(그림 4 참조)

로브·아·라·까라꼬는 영국식 上衣로서 부인용 승마복에서 유래한 옷으로 80年代와 90年代에 유행한 투퍼스식 로브의 일종이며¹⁶⁾ 삐에로 자켓(pierrot jacket)이라고도 불리었다.

까라꼬에는 여러가지 모양이 있으며, 어느것이나 上衣의 길이가 짧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짧고 허리에 꼭 끼이는 것과 단에 플레어(flare)를 넣어 옷자

락을 늘어뜨린 것도 있다. 목둘레선은 깊게 파이고 얇은 綿으로 만든 핏슈 칼라(fichu collar)가 디자인 되어 있고 엉덩이는 밧솔·실루엣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당시 정숙한 부인이나 나이든 부인들이 너무 많이 노출된 앞가슴을 가리기 위해 목도리와 같은 얇은 천으로 만든 핏슈를 목에 둘렀는데 앞중심에서 브로취로 묶거나 뒤에서 묶었다.

<그림 9>는 삐에로 자켓의 구성법이다. 엉덩이 길이의 이 자켓은 허리가 꼭 끼고 엉덩이둘레에 주름장식이 페플럼(peplum)처럼 달려 있으며 스커터트는 풀이 넓다. 이 자켓은 까라꼬와 스커터트로 형성된 앙상블(ensemble)이었으며 80年代 유행했다.

5. 로브·아·랑글레예즈(Robe à L'anglaise)
(그림 5 참조)

로브·아·랑글레예즈는 1778年頃부터 나타났다.¹⁷⁾ 이 로브는 英國風으로 몸에 꼭 끼는 bodice로 가슴을 강조하고 스커터트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길이가 땅에 끌리며 게더(gather)로 풍성하게 만들어졌다. 목둘레는 부드럽고 넉넉한 핏슈를 둘렀으며 소매는 길고 가는 모양에서부터 부드럽고 풍성한 팔꿈치 길이의 퍼



[그림 10] Robe à L'anglaise의 構成法 (Waugh, Norah, Diagram XXVI)

프 슬리브(puff sleeve)까지 다양하였다.

織物은 일반적으로 겹잡은 색이며 암색계의 사틴을 사용했다.

이 로브는 빠니에 없이 착용할 수 있어 간편하였으

며 프랑스혁명 이후에도 애용되었다.

<그림 10>은 로브·아·랑글레예즈의 구성법이다. 스커어트와 bodice는 따로 베어 재단하고 허리선의 뒷중심 양쪽에는 큰주름을 만들었다. bodice는 몸에 꼭 끼이게 하기 위하여 주름을 잡아 위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좁아지게 하여서 뒷몸판에 꼭 맞도록 했다. 몸판은 뒷중심, 뒷몸판 옆솔기과 겨드랑 밑 솔기로 구분되며 뒷몸판은 허리선으로부터 2~3인치 길이로 뒤에서 뾰족하게 만들었다. 소매는 꼭 끼는 긴 소매길이이며 오버스커어트는 길고 풍성하며 언더스커어트가 보이도록 앞이 개방된 옷이다.

로브·아·라·프랑세예즈는 의식행사 때 착용되었으나 이 영국식 스타일의 로브·아·랑글레예즈는 일상생활에 매일같이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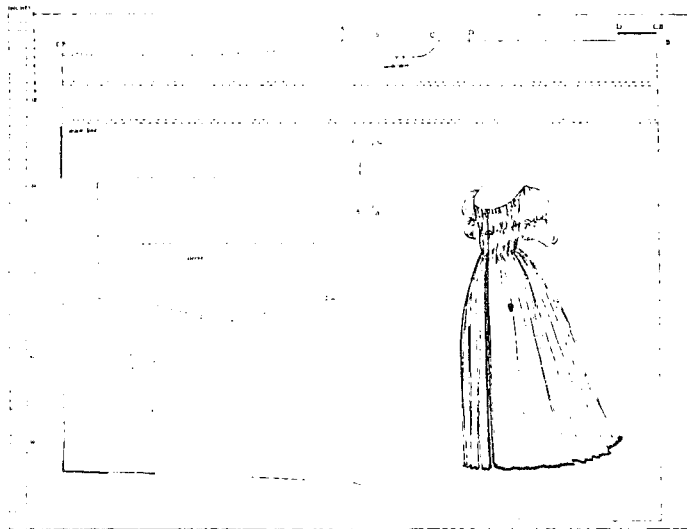
6. 슈미즈·아·라·렌느(Chemise à la Reine)

(그림 6 참조)

슈미즈·아·라·렌느는 슈미즈 드레스(chemise dress)라고도 하며 1781년부터 매우 인기있던 스타일로 마리·앙뜨와네뜨가 처음으로 입었다.¹⁸⁾

이 옷은 단조롭고 부드러운 모양으로 1778년~1789년에 유행된 인디안 코튼(Indian cotton)으로 만들었다.¹⁹⁾

<그림 6>은 마리·앙뜨와네뜨의 슈미즈이다. 소매모양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다른 드레스와는 달리 풍성한 것으로 소매가운데를 한번 꿰매어 꾸렀기 때문에 귀여운 분위기를 더해 주었다. 목선은 깊이 파고 목둘레는 러플로 메디치 칼라(medici collar)처럼 세웠다.



[그림 11] Chemise à la Reine의 構成法(Waugh, Norah, Diagram XXV)

스커이트는 계더를 잡아 풍성한 스타일을 이루고 허리에는 새쉬 벨트(sash belt)를 매었다.

〈그림 11〉은 슈미즈·아·라·렌스의 구성법이다. 원피스(one-piece)형으로 bodice와 스커이트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한 장으로 재단이 되었다. 뒷중심은 꺾(fold)로 재단되고 앞중심에서 솔기가 있으며 가슴부분과 허리선에서 케매주어 계더를 만들고 풍성한 스타일을 이루었다.

IV. 結 論

로브·아·라·프랑세에르는 로코코 最盛期 衣裳을 대표했다. 이 로브의 우아함이나 화려함은 衣裳 자체를 하나의 藝術品으로 만들었다. 특히 프릴(frill)이나 러플(ruffle) 등의 주름장식, 레이스, 리본, 꽃 등을 주로 사용하여 여성다운이 衣裳에 최대한으로 표현되었다.

18세기 로코코風을 가장 잘 나타낸 로브·아·라·프랑세에르는 1774년을 정점으로 하여 프랑스혁명 이전까지 궁중에서 사용되었으나 1770년대 후반부터는 좀더 간소한 부장으로 뽀로베에즈, 씨르카시엔스등이 등장했으며 1780년대부터는 로코코風은 점차로 많은 退潮를 보이고 英國으로부터의 合理主義, 東方으로부터의 古典主義의 영향을 받아 실루엣과 裝飾面에서도 보다 단순해지고 節制있는 表現으로 변해갔다. 이러한 경향속에서 나타난 것이 까라쵸, 랑글레에즈, 슈미즈 등이었다.

1780년대에는 다시 밧솔 스타일이 되었고 1790년대 프랑스혁명 이후는 古典主義, 自然主義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러운 튜블라(tubular)형이 유행되었다.

英國에서는 프랑스혁명이 일어나기 20여년전인 1770년대부터 古代 그리이스의 衣裳을 동경하는 풍조가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취향의 服飾이 나타났다. 즉 얇고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그리이스 키톤(chiton)과 같은 스타일의 옷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슈미즈·드페스이었다. 이러한 衣裳이 나타난 것은 英國의 산업혁명으로 인한 織物技術의 현저한 진보가 많은 옷감의 생산을 가능케 했으며 또한 그 당시 부자유스러운 파니에로부터 해방되려는 정신과 갈망이 합치되었기 때문이다.

르네상스 이래 약 300년의 貴族文化를 구가한 호화로운 衣裳은 프랑스혁명을 주도한 부르주아에 의해 일소되고 매우 간소한 服裝이 그들의 理想的 社會에 잘 어울리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18세기 후기는 女子服에 있어서 形態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던 轉換期였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로코코시대의 衣裳은 社會의 추세에 따라 심하게 변하는 것을

볼때 社會발전이 衣裳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論文에서는 可能的 限 많은 資料를 수집하여 例示, 說明, 分析을 통하여 18세기 後期の 女子服飾의 特性과 그 變化를 밝히는데 重點을 두었다.

本 연구자료는 實物을 실측하지 못하고 文獻에 收錄된 實物사진과 그림에만 依存했기 때문에 정밀한 분석이 불충분하였다. 이러한 制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資料수집과 文獻의 발굴을 계속하여 좀더 깊은 研究에 임하고자 한다.

參 考 文 獻

- 1) 金惠全, 佛蘭西 女子服飾에 關한 比較研究; Louis XVI 親政期와 革命以後 帝政期까지,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論文, (1972).
- 2) 趙순옥, Rococo時代의 女性服飾에 關한 研究, 弘益大學校 産業美術大學院 碩士論文, (1981).
- 3) 朴春順, 18世紀 프랑스服飾과 Rococo 裝飾 Motif, 服飾, 제 4호, (1981).
- 4) Latzke, Alpha & Hostetter, Hellen P., *The Wide World of Clothing*, The Ronald Press Co., New York, 152(1968).
- 5) Boucher, Francois, *20,000 Years of Fashion: The History of Costume and Personal Adornment*, Harry N. Abrams, New York, 291, (1965).
- 6) 李正玉, 西洋服飾史, 學文社, 257, (1978).
- 7) Upjohn, E.M., Wingert, P.S., Mahler, J.G., *History of World Art*, Oxford University Press, N.Y., 413, (1958).
- 8) 鄭興淑, 服飾文化史, 敎文社, 193, (1981).
- 9) Kybalová, L., Herbenová, O., Lamarová, M., *The Pictorial Encyclopedia of Fashion*, Crown Publishers, Inc., N.Y., 209, (1968).
- 10) Latzke A. & Hostetter, H.P., op. cit., 158.
- 11) 円野郁(李熙賢譯), 西洋服飾史, 耕春社, 140, (1982).
- 12) 円野郁, 西洋服飾發達史(近代編), 東京光生館, 219, (1959).
- 13) Waugh, Norah, *The Cut of Women's Clothes 1600~1930*, Faber & Faber Limited, London, 73, (1968).
- 14) Payne, Blanche, *History of Costume*, Harper & Row, Publishers, New York, 428, (1965).
- 15) Payne, Blanche, op. cit., 430.
- 16) 申尙玉, 西洋服飾史, 修學社, 44, (1984).
- 17) Boucher, Francois, op. cit., 302.
- 18) 鄭興淑, op. cit., 209.
- 19) Waugh, Norah, op. cit., 74.